

초록 물결 넘실 ~ 21일 고창 청보리밭 축제

내달 13일까지 ... 전통놀이·시골장터 등 즐길거리 다채

초록빛의 보리밭 사잇길을 걸으며 향긋한 봄 내음을 맡는 '제15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오는 21일 개막해 내달 13일까지 이어진다.

전국 최초로 '보리'를 주제로해 경관농업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는 '한국인의 분향 고창! 피어나는 경관농업!'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농협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상하농원이 후원한다.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의 100ha 부지에 펼쳐진 보리밭을 연인, 가족과 함께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자리다.

보리 개떡과 보리 순강정 만들기, 보리 피리 만들어 불기와 같은 다양한 토속행사를 체험할 수 있고 널뛰기, 외줄 타기, 투호던지기 등의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특산품 판매장, 시골 장터도 운영된다. 또 축제장 내 마련돼 있는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농경유물전시관에서는 전통 농업유산물 100여점이 전시되고 집공예와 다듬어 시연 등을 통해 방문객이 전통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방문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을 증설하고 여유롭게 보리밭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갈길을 깔고도 운영한다.

주차장을 새로 증설해 35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게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리를 수확하고는 메밀꽃, 해바라기, 백일홍,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을 심어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화려한 꽃 잔치를 이어간다.

학원관광농장을 9개 구역으로 나누어 7개 구역에는 해바라기와 메밀밭 심고, 2개



지난해 열린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농악패와 함께 보리밭길을 걷고 있다. <고창군 제공>

구역에는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심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고창군 학원관광농장 관계자는 "연간 50여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경관농업 1번

지'의 사명감을 가지고 멋진 보리밭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하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신규직원 13명 모집

내달 3~11일 서류접수

인천·울산 항만공사 합동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이하 공사)는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2018년 신규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중북 합격에 따른 다 응시자의 채용기회 축소 및 과도한 경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발생 완화를 위해 이번 합동채용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항만공사는 최종 협의를 거쳐 4월 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며 5월3일~5월11일 서류접수한다. 5월19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번 '합동채

용'을 통해 선발할 신규 직원은 총 13명이다.

부문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4명(사무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각 1명), 실무직 4명(항만내선 관리 운영 1명, Port-MIS 운용 3명), 무기계약직(정규직) 5명(마케팅, 세무, 산업안전 관리, 환경관리, Port-MIS 운용 각 1명) 등 총 13명이다.

특히 무기계약직(정규직) 부문 중 선박 입출항 Port-MIS 운용 분야 1명은 정부의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Re-start)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항만공사 합동채용에서는 항만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뿐만 아니라 '항만공사 종합직무능력평가'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18일 정읍시청에서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과 전북도 문원영 투자유치과장, 정영희 삼영유니텍 대표이사, 전북연구개발특구 서준석 본부장 등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 첨단산단에 방사선 의료기업 들어온다

(주)삼영유니텍 2020년 입주

국내 대표적인 방사선의약품과 첨단 방사선의료기기 전문기업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투자한다.

정읍시는 (주)삼영유니텍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18일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영유니텍은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전북연구개발특구) 내 8158㎡(2468평) 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투자에 따라 모두 1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2년 설립된 삼영유니텍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방사선의약품과 첨단 방사선 의료기기 생산 등을 생산하는 전문 제조 기업이다. 현재 대학연구개발특구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다.

정읍 첨단과학산단은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과 국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 협약을 포함,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 협약률은 79%"며 "앞으로 3대 국제연구소와 연계된 첨단기술기업 기업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양배추, 日 수출 앞두고 계약 재배

올 40여t ... 품목 확대 방침

군산에서 생산된 양배추가 일본인 식탁에 오른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일본에 양배추를 수출하기 위해 농민과 3월부터 계약재배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일본에 수출되는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 무게의 2분의 1 정도인 1kg 내외의 소형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아삭하면서 당도가 높은 생식용이며 일본 현지 시식회를 통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발된 품종이다.

시는 올해 양배추 재배단지 8ha에서 월 40여t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연간 2000t까지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양배추 외에 절임배추, 파프리카, 고추, 상추, 케일, 시금치 등 수출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농업기술센터 안창호 소장은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맞춰 논벼 대체 소득작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양배추를 시작으로 군산의 우수한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익산시 축산농가 재해보험가입비 지원

익산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와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다.

시는 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방비의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49개 농가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을 진행한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광양 목재문화체험장 24일 시범운영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광양시 휴양림사업소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사진)을 정식개장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임시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1333.35㎡의 수려한 한옥으로 건축됐다.

1층에는 대화방(체험실)과 백운방(전문가체험실), 목공기계실, 2층에는 나무상상놀이터와 동백방(체험실), 전시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유아, 초·중·고생, 성인 및 가족으로 구분해 목재재를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작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4~6세 아이들을 위해 나무상상놀이터를 꾸며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친근하게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목재문화체험장 임시운영으로 휴양림에서 숲 속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문화 체험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며 "6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해 하반기에 더 다채로운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797-9511, 9517.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동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신안군 압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임 조용한생활권 4700만원
-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 3136㎡ 전원생활권 5700만원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주택·원룸·오피스

- 전원주택 함평 해변면 대지 966㎡ 집 79㎡ 타미에서 차로5분 1억5500
- 월산동 소방도로점 2층 주택 전체공실 토지 150㎡ 1억7천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4500

투자·매도·교환

- 곡성군 죽곡면 선진강 압북부근 계획관리지역 1439㎡ 팬션 등 적합 1억2천2백 전원주택 적합 4751㎡ 1억6천 임야 10512㎡ 1억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중음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생촌동 소방도 대지 118㎡ 상가주택 적합 1억5천
- 월산동 월산오피스 664㎡ 2층주택 사할적합 분할매도 가능 4억7천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에적합 공사가 8억8천 매도39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정전너 재개발지역 대로면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충진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북동 5층건물 대지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대지 155㎡ 건물 263㎡ 은행 1억4천 매도 3억7천
- 충진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북구 문흥중 대지 171㎡ 5층 상가주택 491㎡ 임대생활적합 7억6천
- 양동시정 전대정문쪽 땅 2902㎡ 주상복합개발적합 은행 30억 매도 67억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중음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2층주택 사정상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6200만원
- H. 010-6838-1230

최고급 전원주택(별장)

▶정남진 장흥, 환상적인 해변의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 리조트, 선착장이 어울린 최고급 유희용 주택

토지 4,900㎡ / 건물 238㎡ → 매가 7억 2천

캐나다산 수입원목(100%) 목조건축물 최고급 수입 원자재 시공, 조망권 최고! 광주에서 45분!

◎ 남해안에 터이상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투자만점

▶화순 도곡면 원화리 도곡천 인근
계곡관리지역 전 및 임야 29,198㎡
지역 → 매가 9억 8천 투자최고!!

H. 010-4226-7722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증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남신산리본로 49(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2-953-2995 Fax. 0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창간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